

목표·내용·방식·평가가 상호작용할 때 교육은 ‘혁신’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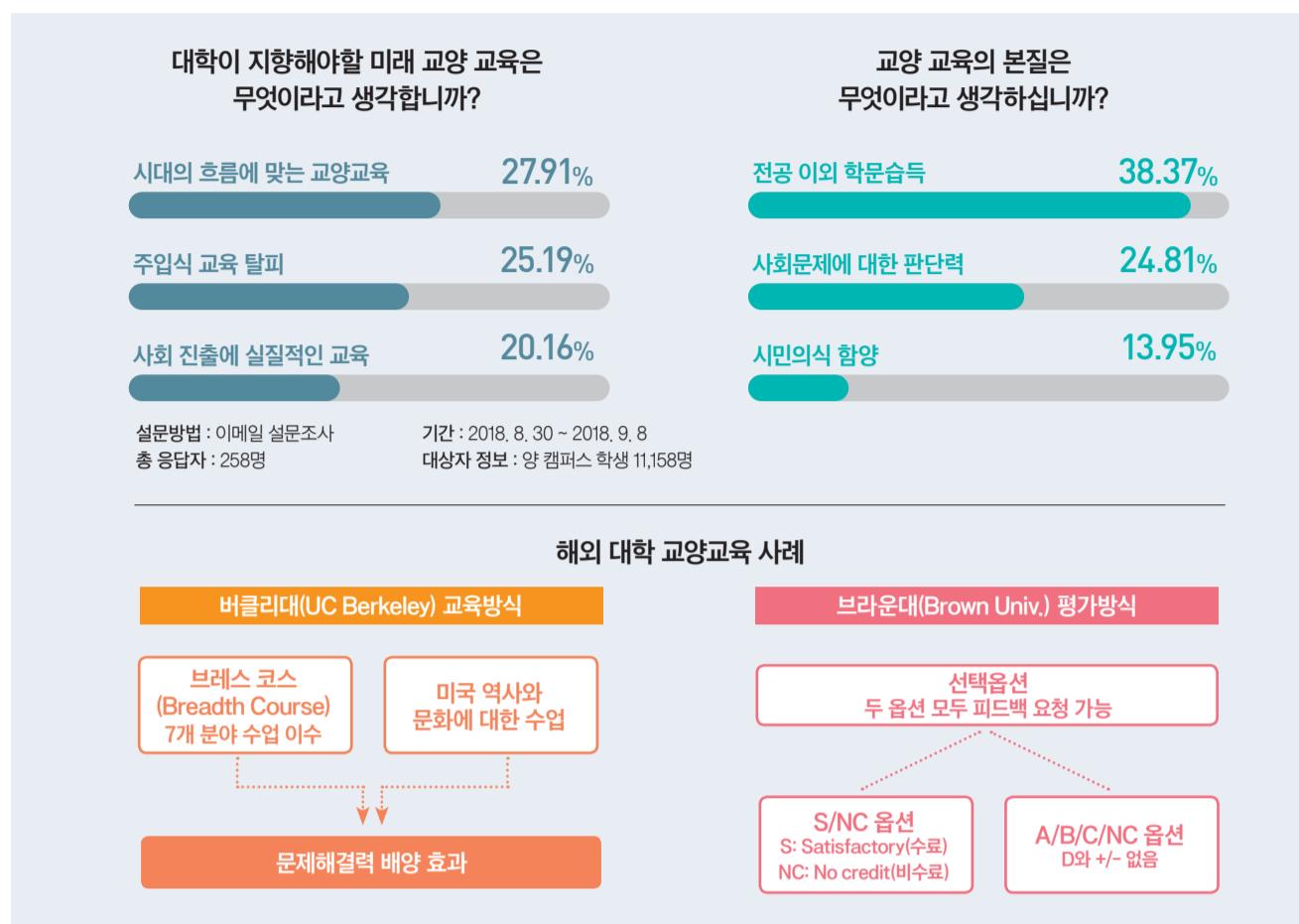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nu.ac.kr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대학도, 교육도, 교양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는 교양의 가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7년, 우리신문은 후마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미래가치를 짚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방식으로 나눠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교양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살펴본 미래 교양교육의 지향점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미래교양교육이 다양한 학문의 배움터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우리신문이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본질로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꼭넓게 공부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속에서 대학 미래교양교육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에는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도 포함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가 전제될 때 비로소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때 갖춰지며 정해진 틀을 깨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실용을 쫓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융합과 비판을 실현하는 교양교육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교양교육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 집단, 사회, 나아가 지구에 대한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정일 전 후마 대학장은 “미래교양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가 궤를 이뤄 함께 함양 될 때 학생들은 종합적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며 이는 곧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심화된 전공 교육만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화된 바보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교양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제해결력을 갖추는 것을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즉, 여기서의 문제해결력이란 심화된 전공 지식영역의 일이 아닌 것이다. 현대 사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교양교육에도

시대의 변화 반영 필요,
현대 사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해

원한다.

이를 교육 내용에 녹이는 것은 대학이 당면한 숙제다. 우리신문은 발 빠르게 숙제를 해결한 타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살펴봤다. 브레스 코스(Breadth course)제도를 운영하는 버클리대에선 화학, 수학 등 일곱 개 분야 수강이 필수다. 또 미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공동체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 해결력을 갖는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버클리대의 교육목표와 관련 있다.

국내에는 전남대의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이 있었다. 이는 미디어, 문화와 예술, 디자인, 소프트웨어공학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양과목이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1,2학년 학생들이 협업을 진행하고 각기 다른 전공 교수 4명이 팀티칭 방식으로 교수해 융·복합의 가치를 실현한다.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은 “같은 교육 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育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법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교수법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와 교수법 적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짚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학회장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교양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을 위해 플립러닝과 스마트러닝을 각각 도입한 카이스트와 한국외대의 사례를 살펴봤다.

플립러닝 개념을 구체화한 카이스트의 ‘에듀케이션 3.0’은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토큰·협동형 과제, 실험을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생이 수업의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업의 주체성을 높인다. 한국외대는 지난 4월 지식 출판원을 지식출판콘텐츠원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스마트러닝 개발에 나섰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 이는 창의적 학습 환경의 토대로 문제 해결력 발전의 바탕이 된다.

교수법의 개선도 강조되지만 학생들의 참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교육방법의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가 플립러닝과 스마트러닝이다.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방식도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평가 방식의 혁신은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의 ‘평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곧 평가가 더 이상 수치로서 학생들의 학업적 주체성을 저해하지 않고, 피드백으로서 학업의 주체성을 세우는데 기여할 때 교양교육의 목표 실현이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버지니아대 교육전문가 루태호 교수는 평가에 몰두하는 현재의 교육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4차 산업 혁명으로 융·복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역량기반학습(Competency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수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개별적 피드백을 주는 방식과 Pass/Fail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성적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우리신문이 준비했던 4편의 미래교양리포트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변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성원이 갖춰야 할 소양도 변한다. 이 때문에 현대의 대학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목표, 내용, 방식,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는 미래사회 구성원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학의 숙명이기도 하다. (특별 취재팀=최명규, 안나연, 이후승, 김지원, 안수민 기자)

연재 순서

- 미래교양리포트① 후마 어제와 오늘
- 미래교양리포트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 미래교양리포트③ 교수법의 혁신
-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 개최 안내

경희기록관에서는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가. 참가대상 : 경희대학교 관련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개인
나. 대상 기록물 :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문서류	공문서,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각종 종서, 강의노트, 서적 등
시청각자료	사진, 필름, 슬라이드,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박물류	벳지, 상패, 행사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패�드, 의류 등

다. 기간 : 2018년 11월 5일(월) ~ 12월 7일(금) 18:00 마감

라. 기록물 접수처 : 경희기록관 사무실(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406호)

마. 우수 기증자 시상

- 심사결과 발표 : 2018년 12월 21일(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시상 : 수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시상 내역
 - 대상 (1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3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5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자 전원: 경희기록관 기념품

바. 기타

- 공모전에 제출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영구보존
 - 개인 또는 단체(기관, 부서, 동아리 등) 응모 가능
 - 사진파일 등 전자기록물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 문의처 참조
 -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행정문서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적극 환영
- 사. 문의처 :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02)961-0759 / e-mail: archives@knu.ac.kr